

축산물품질평가 공정성관리 강화 방안

감사실 차장 김학재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물고 온 IMF사태 이후 모든 기업은 자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위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가기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국의 약 130개 작업장에서 매일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오리 등의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출하자의 희비가 교차되고 심지어는 품질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불만이 확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일 일상으로 반복되는 축산물품질평가의 결과가 시장에 이렇듯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사에 대한 통일된 관리에 있어서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외부의 끊임없는 물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품질평가원은 과거부터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품질평가사의 평가역량강화와 품질평가의 통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유통에서의 품질평가 결과의 입지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 민원사례가 증가하면서 결국 자체적 내부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5일 '축산물품질평가 공정성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품질평가사 개인의 매일의 품질평가 결과값을 통계적 분석기법(Z-값)을 활용하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자율적으로 평가사 전체의 평균값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평가오류나 부정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율관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관 내부 감사실의 감사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공정성관리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뢰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면 족하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본연의 업무인 축산물품질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동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특검정보**

